

김장철 배추값 상승...요소수 사태도 한몫



▲ 배추 등 김장에 필요한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에서 고객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세계일보'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4,588원이었다. 지난해 3,402원에 비해 34.9% 오른 가격이다. 도매가격은 10kg에 1만1,880원으로, 지난해 5,948원보다 약 2배(99.8%) 비싸다. 지난 3일 8,677원에서 5일 1만850원으로 가격 증가폭도 가파르다.

김장에 필요한 일부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 소매 기준 깐마늘 가격은 1kg에 1만2,230원으로 1년 전 1만63원에 비해 21.5% 올랐고, 쪽파 가격은 1kg에 1만265원으로 1년 전(6,518원)보다 57.5% 올랐다. 굵은 소금은 1만193원으로 1년 전(7,802원)보다 30.6% 올랐다. 다만 무, 생강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

올해 배추 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재배면적이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7% 줄어든 1만1,893ha이고 생산량은 평년 대비 8% 감소한 118만이다.

배추의 생육도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강원,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춧잎에 반점이 생기고 뿌리와 잎이 썩어들어가는 배추무름병이 확산됐고 갑작스러운 비와 한파도 악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요소수 품귀 사태로 운송 비용도 증가해 배추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찌감치 절임배추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사람도 늘었다. 한 대형 마트는 지난 4일부터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 결과 이날까지 준비된 물량 중 80%가량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모임 제한 규제 풀리자 의류 매출 폭증

이른 추위 속에 재택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출근을 시작하자 이른바 '출근룩' 판매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일 '한국경제'가 주요 백화점과 패션업체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가을·겨울 외투와 패딩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연 뒤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며 "최근 모임 제한이 풀리고 외부 활동이 늘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패션 부문 매출은 15% 증가했다. 해외패션과 여성 컨템퍼러리 등 출근룩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야외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요가, 수영복 등 애슬레저복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

가했다.

한국의 패션업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3분기 영업이익 17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10% 늘어난 3,750억 원이었다.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오롱FnC 등도 마찬가지다. 한섬의 3분기 영업이익은 3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영업이익은 101.4% 늘어난 141억원을 기록했다. 코오롱FnC는 골프복 판매가 늘어 적자폭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올겨울 라니나 현상으로 기온이 예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미리 패딩, 코트를 사두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강남-김포공항 10분



▲ 드론 택시인 '블로콥터'의 시연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오는 2025년 상용화 예정인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일명 드론택시) 시연 행사가 열렸다.

UAM은 수직 이·착륙하는 전기동력 비행체에 사람이 타 이동하는 교통 체계다. 드론·헬리콥터·비행기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다. 넓은 활주로가 필요치 않고, 헬리콥터보다 소음과 진동이 훨씬 적다. 상용화할 경우 서울 강남에서 김포국제공항까지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도 없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날 시연행사에는 독일산 '블로콥터', 한국항공연구원이 국책연구로 개발 중인 국산 시제기 '오파브', 중소기업 에어콤 등이 공동개발한 '볼트라인' 등 3대가 비행 시연을 선보였다. 비행 시연은 김포국제공항 주변 3km 구간의 회랑(하늘길)을 기체가 3-5분간 비행한 뒤 착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파브'는 축소형 모델(날개폭 3.1m)의 시제기다. 항공우주연구원, KAIST 등이 참여해 개발 중이며 세계 두 번째로 일반 항공기급 기체 제어 기술인 '필트시스템'을 탑재했다.

볼트라인은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헬리콥터를 뜻하는 '멀티콥터형' 드론이다. 크기 2.8m의 1인승급으로 최대 160kg까지 싣고 이륙이 가능하며 순항 속도는 43km/h, 최고속도는 90km/h에 달한다.

이날 시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탑승 시간과 목적지만 입력하면 기체에서 내린 승객이 최종 목적지까지 지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착륙 시간에 맞춰 배정된 차량이 지정된 '버티포트(착륙장)'에 도착하는 장면도 구현됐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